하지원-김아중, 메스를 든 아름다운 당신



하지원이 MBC 수목드라마 '병원선'을 통해 의사 가운을 처음 입었다. 익숙하게 소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사진제공 | 팬엔터테인먼트

MBC '병원선'-tvN '명불허전'서 의사역 도전

하지원, 의사의 삶 열공…봉합수술 연습
김아중, 흉부외과 의사의 하루 직접체험
실력파 두 여의사 활약에 시청률도 순항

연기자 하지원과 김아중이 각각 MBC 수목드라마 '병원선'과 케이블채널 tvN 토일드라마 '명불허전'을 통해 데뷔 후 처음으로 의학드라마에 도전했다. 10년 이상의 연기 경력을 자랑하는 두 사람이 안방 복귀작으로 처음 경험하는 장르를 선택한 만큼 얼마나 빨리 의사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 시청자의 관심은 뜨거웠다.

● '신의 손' VS '걸크러시'

하지원과 김아중이 각각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의사는 화려한 의술을 바탕으로, 직업을 통해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원은 사람과 어울려 지내는 것보다 치열하게 경쟁하며 홀로 살아가는 생활이 익숙한 인물을 연기한다. 김아중이 맡은 인물도 주변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단지 실력 쌓는 데만 집중하는 차가운 성격이다.

두 사람은 향후 캐릭터의 감정 변화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선행과정으로 의사 가운이 어색하지 않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원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의사의 심리를 간접 경험하기 위해 의사들의 삶을 다룬 에세이를 참고했다. 또 바나나 껍질로 수술 봉합 연습도 했다. 김아중은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실제 흉부외과 의사들의 뒤를 좇으며 이들의 하루를 직접 체험했다. 수술도 참관하며 의사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이 흘린 땀의 결과는 시청률로 이어졌다. '병원선'은 첫 회부터 10%(닐슨코리아)를 넘으며 8월31일 4회까지 평균 10%를 기록 중이다. 8월12일 2.7%로 시작한 '명불허전'은 2일 방송에서 5.5%를 찍으며 지난주 포함 5%대를 유지하고 있다.

● '원맨쇼' VS '쌍두마차'

하지원은 혈혈단신 열연을 펼치고 있다. 상대역인 강민혁과 이서원 등 신인급 연기자들과 드라마를 이끄는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강민혁은 '병원선'이 2016년 SBS 드라마 '딴따라' 이후 두 번째 주인공 작품이며, 이서원은 신인에 가깝다. 지난해 KBS 2TV '함부로 애틋하게'에서 수지의 남동생으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게 전부일 정도로 시청자에게 낯선 존재이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이 하지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아직은 홀로 분투하는 하지원이 향후 상대역들과 어떻게 힘의 조화를 이뤄나갈지가 관건이다.

이런 면에서 김아중은 김남길과 함께 드라마를 함께 이끌고 있어 책임감이나 부담 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서로 맡은 캐릭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다. 김아중은 첫 의학드라이지만 극중 캐릭터가 그동안 몇 차례 보여줬던 '당당한 여성'의 모습이어서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남길도 코믹 연기에 특화된 모습이다. 김남길은 2014년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을 통해 진지함과 코믹함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tvN '명불허전'에서 처음 의사 역을 맡은 김아중은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제공 | tvN

대세가 된 '작곡돌' 후이

워너원 '에너제틱' 작곡가로 유명세
소속팀 펜타곤 새앨범도 관심집중



그룹 펜타곤의 후이가 '워너원의 작곡가'로 유명세를 얻으면서 팀의 컴백활동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뉴시스

그룹 펜타곤 멤버 후이가 '워너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후이는 대중문화 전반을 휩쓸고 있는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의 히트곡 '에너제틱'의 작사와 작곡가로 참여해 유명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케이블채널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 방송 당시 연습생들의 평가곡 '네버'까지 작사, 작곡해 팬들은 물론 가요계에서도 후이를 주목하고 있다.

두 곡이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됐을 당시 1위는 물론 현재까지 인기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후이가 매달 거둬들일 저작권 수입이 상당할 전망이다. 이미 가요계에서는 두 곡 모두 음원 성적이 뛰어난 만큼 후이를 '신흥 저작권 강자'로 예상하고 있다.

후이는 그동안 자신이 소속된 펜타곤의 노래만 작사나 작곡해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다른 가수에 곡을 줬고, 이른바 '대박'을 터트렸을 뿐만 아니라 '작곡돌'(작곡 실력이 뛰어난 아이돌)로 그 가능성까지 인정받게 됐다.

덕분에 펜타곤이 6일 컴백을 예고하면서 후이에 대한 관심이 그룹은 물론 새 앨범에도 미치고 있다. 펜타곤의 네 번째 미니앨범 '데모_01' 타이틀곡 '라이크 디스'는 후이가 작사, 작곡했다. 후이가 또 한번 감각적인 곡으로 음악 팬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뜨겁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데뷔 후 처음으로 멤버가 만든 곡을 타이틀로 정했다"며 "후이 뿐만 아니라 멤버들 모두 작사, 작곡에 남다른 재능이 있는 만큼 앨범 수록곡 전곡을 멤버들이 만든 곡으로 채웠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ag.com

'히트메이커' 송강호에게 쏠린 눈

1177만 '택시운전사' 역대흥행 10위
1년에 1편 촬영, 1편 개봉 '1+1전략'
후속작 '마약왕'…'기생충'까지 관심



송강호

배우 송강호 주연의 '택시운전사'가 4일 누적 관객수 1177만2587명(영화진흥위원회)으로 '태극기 휘날리며'(1174만 명)를 제치고 한국 영화 역대 흥행 순위 10위에 오르면서 그가 참여하는 다음 영화들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9월 들어서도 '택시운전사'의 잦아들지 않는 인기의 절대적인 원동력은 송강호의 활약에 있다. 때문에 송강호가 보여줄 또 다른 작품과 모습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도 집중되는 상황. 최근 1년에 한 편의 영화를 촬영하고 또 다른 영화 한 편을 개봉하는 '1+1 전략'을 취하는 송강호가 올해도 어김없이 같은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송강호는 현재 부산에서 영화 '마약왕'(제작 하이브미디어코프) 촬영에 한창이다. '택시운전사' 흥행의 감격을 만끽할 틈 없이 폭염이 이어진 여름동안 새 영화 촬영에 집중했다. '마약왕'은 1970년대 나라를 뒤흔든 마약 유통사건의 배후이자 권력자로 시대를 풍미한 인물의 이야기다. 송강호는 '택시운전사'에 이어 다시 한 번 시대극으로 향해 묵직한 범죄영화를 완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마약왕'은 영화 '내부자들'(2015)로 주목받은 우민호 감독과 송강호의 만남으로 관심을 더한다. 여기에 송강호가 '관상'에 함께 출연해 900만 흥행을 이끈 조정석과 재회한 작품이자, '괴물'의 파트너 배두나도 다시 만났다.

송강호는 '마약왕'을 마무리하면 내년 1월엔 봉준호 감독의 새 영화 '기생충'(제작 바른손E&A) 촬영을 시작한다. 한 가족이 겪는 소동극인 영화는 봉 감독이 '설국열차'와 '옥자'를 통해 한동안 집중한 글로벌 블록버스터에서 잠시 벗어나 오리지널 한국영화로 돌아오는 작품이다.

봉준호 감독의 두터운 신뢰 속에 송강호는 완성된 시나리오도 없는 상태에서 출연을 결정할 만큼 의욕과 애정을 보이고 있다. 2006년 '살인의 추억'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괴물'과 '설국열차'를 거쳐 이번에 네 번째다.

'기생충' 출연을 확정한 직후 송강호는 "정말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영화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로만 접했는데도 궁금하고 정말 새롭다고 느꼈다"면서 "파괴력과 파급력이 있는 영화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리 기자 gofl024@donga.com

연예현장.jpg

래퍼 행주 '쇼미더머니6' 우승 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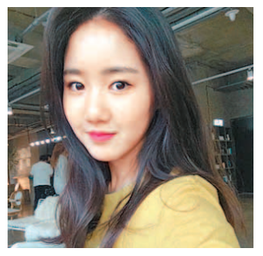
래퍼 행주(가운데)가 엠넷 '쇼미더머니6'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일 새벽 끝난 '쇼미더머니6' 결선 무대에서 행주는 '베스트드라이버Z'와 '돌리고'를 선보여 우원재, 넉살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우승자가 됐다. 2010년 데뷔한 힙합 3인조 리듬파워의 멤버인 행주는 우승이 확정된 후 "리듬파워 친구들이랑 더 멋진 음악을 하고, 잘 되려고 나온 건데 둘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난다. 엄마에게 감사하고, 지코와 딘에게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사진제공 | 엠넷

숫자뉴스

9925일

가수 윤종신이 데뷔 후 음악방송 1위를 하기까지 걸린 날들이다. 윤종신은 1990년 7월1일 발표된 015B 음반을 통해 가요계 데뷔한 이후 9월1일 KBS 2TV '뮤직뱅크'에서 '좋니'로 1위를 차지했다.

#해시태그 컷



진지희, 이젠 여인의 향기가…

언제까지나 천덕꾸러기 '빵꾸똥꾸'일줄 알았던 연기자 진지희가 성숙미를 한껏 드러냈다. 앳된 느낌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여성스러운 매력이 돋보인다. 길게 늘어뜨린 헤어스타일과 과하지 않은 메이크업으로 청순미까지 강조했다. 팬들은 고등학생인 진지희가 성인이 될 모습에 벌써부터 관심을 보인다. 외모만큼 격변할 연기력에도 기대를 보내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스포츠동아 #진지희 #소녀에서숙녀 #여성미뿜뿜 #정변의좋은예

백솔미의 니혼 테레비

몇시간 만남후 키스 낯 붉히는 일본예능



일본 TBS '라스트 키스-마지막에 키스하는 데이트'

현재 채널A '하트시그널'과 엠넷 '내 사람친구의 연애' 등 연애 예능프로그램이 화제 속에 방영되고 있다. 일본에도 '연애 예능'이 인기다. 일본 지상파 TBS '라스트 키스-마지막에 키스하는 데이트'는 '수위'가 꽤 높다. 키스를 해야 한다는 게 규칙이다. 남녀가 처음 만나 반나절 데이트하고 키스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파격 그 자체다. 심야방송이지만 이런 프로를 기획하는 방송사도 놀랍다.

'라스트 키스'는 데이트 상대로 누가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녀가 1일 커플이 된다. 남성이 미리 짠 계획에 따라 데이트를 즐긴 후, 헤어지는 시간에 서로 키스를 한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감정을 교류하고 키스로 데이트의 종료를 알린다. 이 장면을 카메라는 여러 각도에서 담으며 간혹 노골적일 정도로 클로즈업한다. 영상을 스튜디오에서 보며 이야기하는 진행자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민망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출연자는 무명 연기자부터 AKB48이나 모닝구무스메 등 유명 걸그룹 출신까지 다양하다. 프로그램 속 남녀는 처음엔 어색해하지만 이내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출연자들이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며 프로그램 기획의도대로 행동하는 것이지만, 30분 남짓의 방송 시간 동안 시청자는 그저 남녀의 키스장면을 몰래 지켜보는 재미뿐이다.

'라스트 키스'는 후지TV '테라스 하우스'나 한국의 연애 예능처럼 출연자들이 '썸'을 타고 '밀당'하는 장면을 통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서로 존재도 몰랐던 남녀가 단 몇 시간 만에 키스를 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처음 만난 사람과 단시간에 가까워지는 게 일상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지만, 방송사가 대놓고 '조장'하는 건 사람의 감정을 쉽게 여기는 것 같아 불편하다. 엔터테인먼트부 기자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